

르노삼성, 태양광발전소 본격 가동

부산공장 20MW급 6월13일 준공 ... 단일 공장부지로는 세계 최대규모

르노삼성자동차(대표 제롬 스톨)가 부산공장의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자동차는 6월13일 부산공장에서 산업통상부, 부산시, 한국동서발전, KC코트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MW의 <부산 신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는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부산 신호 태양광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 KC코트렐, KC자산운용의 3자 협약으로 특수목적법인인 부산신호태양광발전을 설립해 2012년 7월 착공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자동차 출고장과 공장지붕 등 약 30만평방미터 부지에 560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해당 발전소의 발전량은 2만5000MWh로, 부산공장 인근 8300 가구의 명지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 저감량도 연평균 1만600여톤에 달해 소나무 380만그루를 심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산 신호 태양광발전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단일 공장부지를 활용한 세계 최대의 발전소로 국내에서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예비전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발전소 준공은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르노삼성자동차는 기대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준공식 행사에서 전기자동차 SM3 Z.E.를 전시하고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손도장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차 사장은 “친환경자동차 문화를 선도하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와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2>